



한울림 교회

방송설교

KRB(FM87.7)
토 6:30pm / 주일 6:30AM

단비 TV
본방-토 9PM/재방 월 11AM

Youtube - 한울림TV

www.hpcny.org
hulpcny@gmail.com

섬기는 사람들

전도사

차유미

목사

김원재, 양명철

오전 9시 / 11시

교회소식

11월의기도

찬양*

기도인도

봉헌*

말씀교독

특별찬양

말씀선포

찬양과결단*

축도*

추수감사주일

예배 인도: 김원재목사

인도자

다같이

다같이

인도자

다같이

다같이

샤마임찬양대

김원재

다같이

인도자

교회를 위한 기도

감사하는 성도여(찬 587)

은혜

날 구원하신 주 감사

감사해 시험이 닦쳐 올 때에

만 가지 은혜를(찬 216장 4절)

사도행전 22:30-23:11

어서 추수 합시다

“주님께서 바울 곁에 서서”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찬 540)

* 일어서서

(서기 힘든 분들은 앞쪽으로 와서 앉으시거나

그 자리에서 앉아 계셔도 됩니다)

1. 오늘 예배에 참석한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평화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2. 11월의 기도는 “**교회를 위한 기도**”입니다. 주일예배 시간에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3.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한 해 동안 받은 은혜를 감사하며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절기입니다. 오늘 드린 추수감사주일 헌금의 50%는 선교와 이웃사랑계정으로 사용됩니다.
4. 오늘 드린 “**사랑의 나눔**” 헌물은 가난한 이웃들에게 전달됩니다.
5. **큐티책 12월호가 나왔습니다.** 구입하셔서 큐티하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문의 - 박순정)
6. **중보기도팀**이 다음주에(11/28) 새 예배당에서 기도회를 갖습니다. 참석을 원하는 분들은 미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양명철, 정주애)
7. **삼공부 “생명의삶”**이 오늘 오후 1시에 친교실에서 있습니다.
8. **현장새벽기도회**가 “목~토”에 있습니다. “월~토” 영상새벽기도회도 계속 되고 있습니다. 적어도 1주일에 한 번은 새벽기도회에 꼭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Zoom ID: 3213210608 / PW: 0608
9. 새벽기도회(오전 5:30)에 Zoom을 통하여 영상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분들은 아래의 것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Zoom ID: 3213210608 / PW: 0608
10. 우리 교회 설교가 KRB 라디오방송(FM 87.7, FM 101.5, HD Radio FM 93.5-4 토 6:30PM, 주일 6:30AM), 단비 기독교TV(토 9:00PM, 월 11:00AM), youtube의 한울림TV(설교와 칼럼)를 통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전도의 수단으로 삼아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교회, 전도에 힘쓰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풍성함 그것은 감사할 때 가능하다

미국의 가장 큰 명절인 추수감사절이 이번 주간에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추수감사절이 있는 주간 전후 주일을 추수감사주일로 지킵니다. 우리 교회는 추수감사절 전 주일인 11월 셋째 주일을 추수감사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추수감사절”은 영국의 신앙적 박해 상황을 피해 신앙의 자유를 찾아 미국으로 이민 온 청교도들이 어렵게 농사를 짓고 수확물을 거둔 후, 추수를 하나님께 감사하며 시작된 것이 그 기원이라고 합니다. 미국이라는 나라가 생기기도 전에 이 절기는 시작되었고, 이 땅에 살아가는 것 자체가 감사라는 의미로 이 절기는 이후 계속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날에는 이런 신앙적인 기반은 사라진 채 흩어진 가족들이 이 날에 함께 모여 만찬을 즐기며 재회하는 날 정도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미국인들에게 추수감사절 하면 떠오르는 것이 무엇이나 물어보았더니, Turkey, Gravy, Cranberry Sauce, Pecan Pie 등이라고 합니다. 추수감사절 만찬에 먹는 음식을 말할 뿐 하나님께 감사라든지, 부모님께 감사라든지 감사에 대한 것은 등위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추수감사절은 미국 교회가 전세계에 미친 영향 중에 대표적인 것입니다. 원래 각 나라, 각 민족마다 추수로 인한 축제는 있었습니다. 우리 민족도 추석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추수를 기뻐하는 인간의 축제였습니다. 토속 신앙에 기반을 둔 것이기도 하지 만, 결국은 인간의 축제였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청교도들은 하나님과 감사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영어로 Thanksgiving Day 라고 합니다. 이 절기는 감사를 드리는 날이란 의미가 명확하게 그 명칭 속에 있고, 그 감사의 대상이 그 누구도 아닌 하나님임을 누구나 알게 합니다. 그런데 미국의 추수감사절도 점점 인간의 축제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이어지는 코비드 상황으로 인해 금년 추수감사절에도 교우들이 함께 하는 만찬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여전히 감사의 제물을 드리며, 사랑의 나눔을 어려운 이웃들에게 나누고자 합니다. 이 두 가지를 통해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감사의 마음을 이웃과 함께 하고자 합니다. 구약에서도 감사의 제물은 이웃들과 나누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감사의 계절을 만들어가며 이웃들과 그 감사의 마음을 나누며 진정한 감사를 통해 풍성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